

“회원기업 권의옹호 힘쓸 것”



제25대 대구 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이 19일 대구 동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4대 이재하 회장으로부터 대구상공회의소 깃발을 건네받은 뒤 흔들어 보이고 있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박윤경 케이케이 대표, 대구상의 첫 여성 회장 선출

경선 투표서 68.2% 지지 얻어
이재하 前 회장 명예회장 추대

대구상공회의소가 19일 제25대 대구상의 회장으로 박윤경 케이케이(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관련 기사 3면
대구경제에서 여성이 대구상의 회장으로 선출되기는 대구상의 역사 118년 만에 처음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5 대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5대 회장으로 박윤경 케이케이(주)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재직의원 112명 중 104명의 상공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 회장과 화성밸브(주) 장원규 대표이사가 회장 후보로 나서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신임 박 회장은 참석 상공의원의 68.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진행된 취임식에서 박 회장은 25대 상공회의소 의원 여러

분들의 지지 감사하면서 인사를 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한 장원 규의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경 회장은 그러면서 “회원기업의 권의옹호와 성장을 듣는하게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가 다시 전국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상공의원들의 지지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가 함께 이뤄졌다. 명예회장으로 제23대·제24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 김동구(주) 금복주 회장, 진영환 삼익THK(주) 회장을 추대했다. 또 고문으로는 이재섭(주) 국제텍 회장, 노희찬 삼일방직(주) 회장, 이인중 화성산업(주) 회장, 김동구(주) 금복주 회장, 진영환 삼익THK(주) 회장을 추대했다.

신임 박윤경 회장이 이끄는 제25 대는 오는 24일부터 3년간 대구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선출예정이었던 부회장 등 의 선거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회통톡소-수성갑 강민구 예비후보 4면 | 대구서 또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6면

K-완전돌봄 정착으로 저출생 극복한다

경북도,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자녀돌봄 근무 시간 단축 확대…민간기업 확산 유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시범모델로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에 확산시킨다. 관련기사 7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부부 공동육아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실행,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

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에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북도 직원은 총 48개 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아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준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尹 “징벌 과세 바로잡을 것”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장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력무력 건강하게 자라다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지난 15일 태어난 세쌍둥이가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임신 33주 2일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는 첫째 1.7kg, 둘째 1.94kg, 셋째 1.58kg의 몸무게로 모두 남자아이다. 관련기사 7면

계명대 동산병원

신공항 배후 중심도시 도약 청사진 완성

구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발표

인구 49만…11.568㎢ 개발 예정

구미시가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밝혔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구미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민참여단·주민공청회·구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북도

에서 지난 1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민간개발 사업 시 △ 용도지역의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적용되며, 추후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 구미’로 설정했고, 2040년 목표인구는 49만 명, 시기화에 정용지는 11.568㎢로 계획했다.

또 도시공간구조는 경북대구신공항 개항에 따른 신공항 연계 발전 층을 설정, 1도심·3부도심의 공간구조 설정과 함께 강서·강동·북부권 3개 생활권의 기편을 통해 50만 대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획과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교통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 및 관리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다. 2면에 계속 이봉기 기자 lbg@kyongbuk.com

화통톡소-수성갑 강민구 예비후보 4면 | 대구서 또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6면

경북으로 귀농하자

농촌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경북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 지원내용 귀농인 상담 및 정보 제공
① 가농 박람회, 설명회 참가 등 현장 홍보 ② 귀농귀촌 홈페이지, SNS 등 개설 운영
③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 위치 경북 예천군 회령면 수변로 125, 5층

• 문의처 경북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54-650-1181, 1192) (www.greendaero.go.kr)

시군 귀농귀촌센터 운영

• 지원내용 귀농인 상담 및 정보 홍보 등

• 문의처 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귀농인 정착 지원

• 지원내용 우리 도의 농촌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귀농 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5백만원/농가

• 문의처 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귀농인 농촌진흥기금 지원

• 지원내용 우리 도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영농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융자)
* 5천만원 이내/농가 ** 연 1%~시찰-3년거치 7년상환, 운영-2년거치 3년상환

• 문의처 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내용 농촌 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인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하려는)사람에게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백만원 ** 연 1.5%(5년거치 10년상환)

• 문의처 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거주지원

• 지원내용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임시거주지 제공

• 문의처 도·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2개소)

• 지원내용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기간 가족과 체류하며 산도농가 체험, 영농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 위치 영주시(경북 영주시 진천로 299-3), 영천시(경북 영천시 별빛로 928-60)

• 주요시설 체류형 주택, 숲쉼터, 세대별 텃밭 등

• 문의처 영주시(054-639-7323), 영천시(054-339-7647)

교육

• 지원내용 농촌에서 살아보기(21개 시군) * 개인당 30만원 지원

• 문의처 경북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54-650-1181)

• 지원내용 귀농귀촌 체험교육, 귀농귀촌인-지역민 융합교육, 귀농귀촌 정보교育 및 출렁교育, 귀농귀촌 기초농업교육, 귀농귀촌 정보교育

• 문의처 경북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54-650-1181, 1192) (www.greendaero.go.kr)

• 지원내용 귀농귀촌 아카데미 과정 등 52개 과정

• 문의처 경북농민시민학교(054-383-6903)

• 지원내용 귀농창업 과정 등 6개 교육

• 문의처 경상북도농업기술원(054-320-0395)

청년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지원 등

시군별 귀농특화정책지원

주택수리비자원, 이사비용지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주민초청행사지원 등